

2025 Global Geostrategic Outlook

EY한영 산업연구원
February 2025
Insight Report #25-051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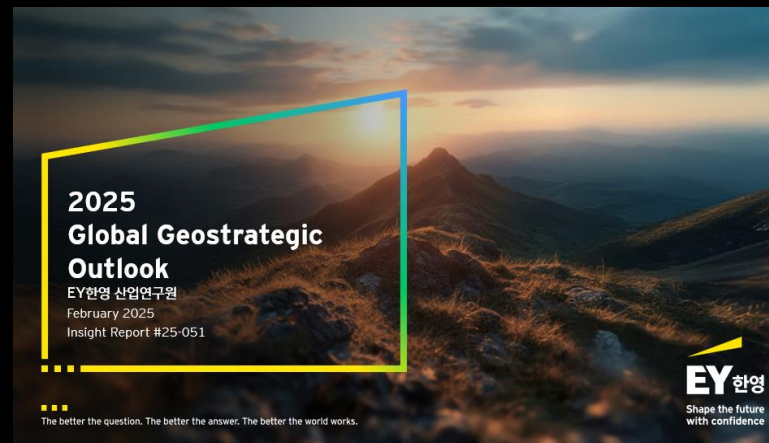
EY Geostrategy Insight Reports

2024



2024년 기업인들이 주시해야 할 **Top 5 지정학적 이슈**
도출 및 산업 별 임팩트 분석

2025



2024년 글로벌 선거 후, 주요 국가별 포퓰리즘 성향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기존 정책들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인들이 2025년 주목해야 할 **Top 6 지정학적
이슈 및 산업 별 시사점 제시**

본 리포트는 글로벌 EY Geostrategic Business Group 보고서를 활용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편집, 발간한 것임

About the Geostrategic Business Group (GBG)

GBG는 지정학적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EY 글로벌 전문 조직이며, EY 글로벌 네트워크 및 Knowledge, Wharton School 등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EY의 View를 제시합니다.

최근에 급증하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학적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무적인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Geostrategic Outlook' Reports (Se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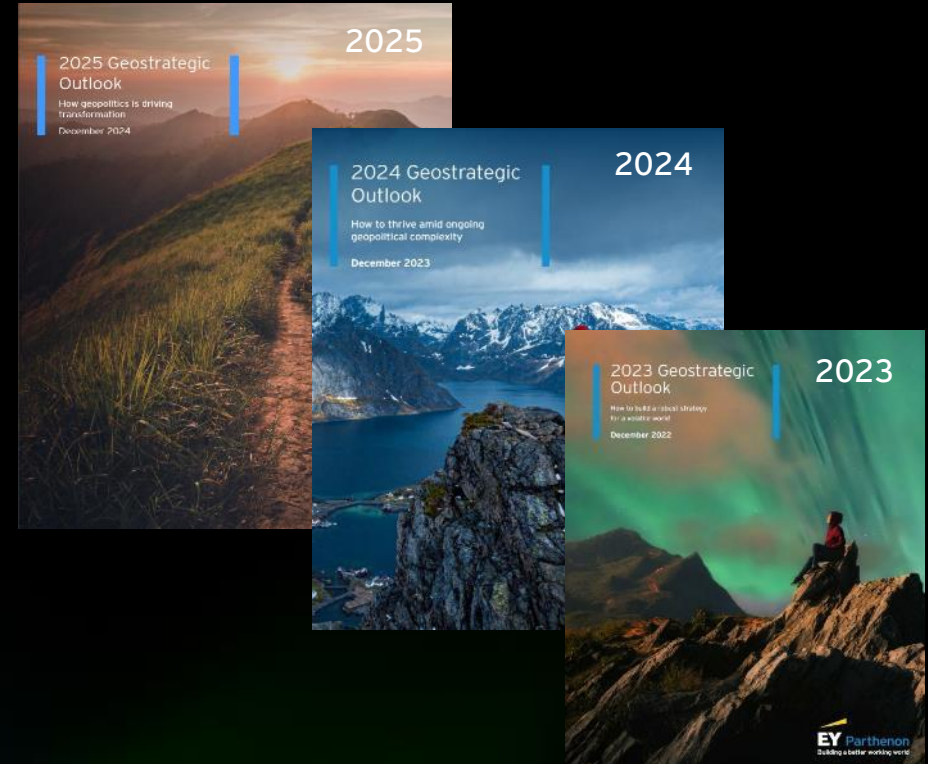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1

2025 Top 6
지정학적 이슈

2

주요 섹터별
Impact

3

지정학적 이슈
대응 전략

01

2025 Top 6 지정학적 이슈

Intro: Populist policy influences

The World in 2025 :

'24년까지 이어진 진보 정책 기조와 대치되는 포퓰리스트¹ 정책의 급격한 확대 전망

Populist Policy Influences

1 '24년 주요국들은 대중, 사회·경제·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새로운 포퓰리스트 정부 선출

장기간의 경제 침체, 실질적 국민 니즈 대응 실패 등으로
기존 정책 기조 불신 확대

2 보호무역주의 및 전략 산업 내재화 등 경제안보 정책 최우선 과제화

많은 국가들은 '25년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집중 전망

3 자국 이익 극대화 위한 외교 관계 중요성 증대

국가 간 경쟁 및 협력 영역의 복합적인 공존으로, 기업 경영 환경
복잡성 확대 예상

Populist Governments in 2025

선거 결과

주요 정책 방향



트럼프 정부
포퓰리즘 성향

- 보편적 관세 도입 및 보호무역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친환경 규제 축소



보수 정당
총선 승리

- 초강경 난민 정책
- 탈원전 정책 폐지



포퓰리즘 정당
의회선거 승리

- 중국 생산품 상계 관세 도입
- Green Deal 정책 폐지 검토



여당 지지율 약화,
포퓰리즘 정책 강화

- 'Make in India' 정책 장려
- 수입품에 높은 관세 부가

1. 기성 정치에 반대하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집단. 특히, 기존의 친환경·친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민족주의를 표방

2025 Top 6 Geostrategic Outlook

Selective Globalization

1 **보호무역주의 확산**
(Taxation Conundrums)

2 **신흥국 경제 블록화**
(Emerging Market Integration)

Pivoting Policies

3 **반이민 정책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
(Demographic Divides)

4 **친환경 전환 속도 둔화**
(Climate and Competition)

New Rising Wars

5 **AI 생태계 장악 경쟁**
(Digital Sovereignty)

6 **우주 경제 패권 시대**
(Astro-politics and the Space Economy)

Populist Policies Influ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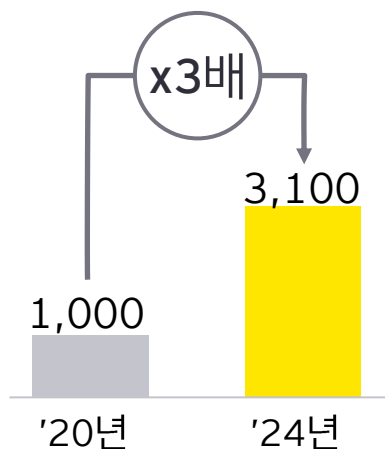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외 수입 견제 및 자국 생산 장려 정책 확대

KEY POINTS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글로벌 무역 규제 지속 증가 전망
- 주요국들은 On/re-shoring 등으로 자국 내 생산 유치 위한 조세 정책 활용 확대 추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무역 관련 규제 및 정책 변화

글로벌 무역 규제 건수¹



국가별 주요 조세 정책²

	▪ 모든 수입품 대상 보편관세 부과 ~20% ▪ 국내 제조업체 법인세율 인하 5% ↓
	▪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45% ▪ 철강, 시멘트 등 추가 관세 부과 10%
	▪ 상대국 고율 관세 동등 부과 세법 제정³ ▪ 美 석유·석탄 추가 관세 부과 ~15%
	▪ 중국산 저가 철강에 관세 부과⁴ ~25% ▪ 자국내 외국 기업 법인세율 인하⁵ 5% ↓

BUSINESS IMPLICATIONS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한 중장기적 공급망 재편 검토

- 미국/유럽 관세 정책과 더불어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물류 및 생산 전략 구축 필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사업군별 기회/위험 요인 대응 전략 필요

- [기회] AI, 바이오, 조선, 방산
-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기업 역할 대체
- [위험] 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 중국 원자재 사용 및 미국외 생산 제한

1. 전 세계적으로 제정된 무역 규제 건수, IMF Source : IMF, 각국 상무부, EY Analysis
 2. 각국 상무부
 3. 중국과 무역협정 맺은 국가가 고율 관세 부과 시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24.04)
 4. '25년 내 시행 전망('24.12 발표)
 5. 40%→35%

신흥국 경제 블록화 및 협력 강화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다변화

KEY POINTS

- 주요 신흥국들은 자체 경제 블록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 도모 및 선진국 견제
- 미·중 분쟁으로 단절된 공급망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신흥국 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복잡도 증가 전망

신흥국 경제 블록화 사유

높아진 경제적 위상

신흥국 GDP¹ 22% → 40%
'01년 '24년

선진국 위주 협력체² 대한 불만 가중

- IMF, 신흥국 의결권 확대 지연³
- OECD, 최저 법인세율 제정⁴

주요 신흥국 협력체 동향

BRICS⁵

- 블록 내 자체 화폐 사용 계획
- '25년 인도네시아 가입 (총 10개국)

ASEAN⁶

- RCEP⁷ 통한 경제 통합 강화
- BRICS 협력 방안 모색

GCC⁸
(걸프지역)

-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계획 통한 블록 내 무역/투자 강화

AU⁹
(아프리카)

- '25년 G20 가입 예정
- 중국 협력 통한 투자 강화

BUSINESS IMPLICATIONS

신흥국向 자본 투자 집중으로 다양한 매출 확대 기회 존재

- 신흥국 인프라 및 생산공장 등 신규 건설 발주량 증가
- 자국민 Buying 파워 증가로 소비재 산업 중심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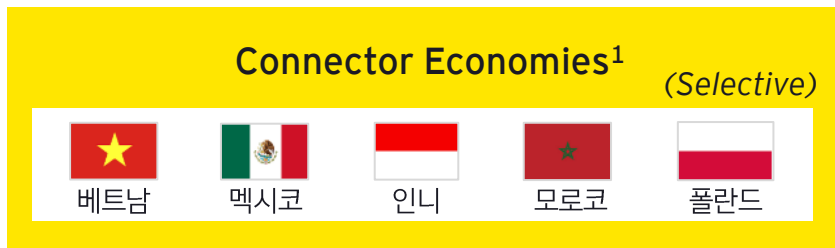
미·중 관계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신흥국 경제블록 검토

- 협력체의 진화 방향 지속 모니터링
- 지정학적 관계, 품목별 인센티브, 운송 비용 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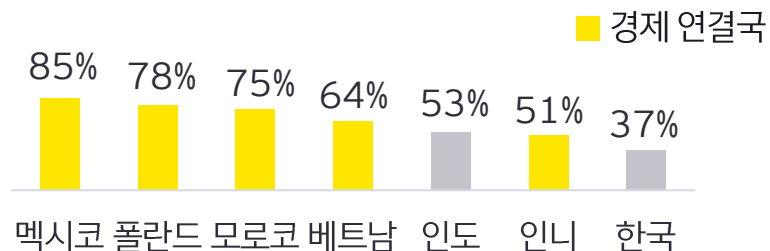
1. World Bank 2. OECD, G7 등 3. BRICS 등 신흥국 의결권 확대 IMF 개혁안 승인 지연 4. '21년 中·印 등 신흥국 반대 불구, 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지정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UAE
6.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15개국 다자 FTA)
8.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9. African Union: 케냐, 남아공 등 32개국
Source: World Bank, EY Analysis

경제 연결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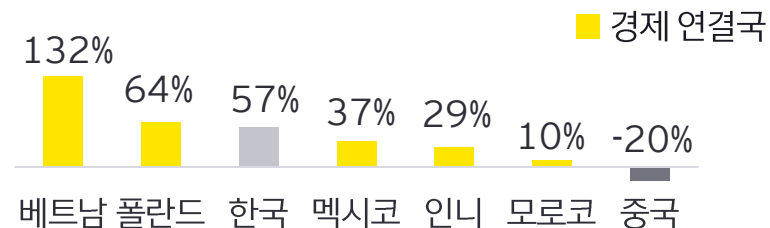
경제 연결국 의존도 강화



중국의 국가별 수출액 증가율² ('1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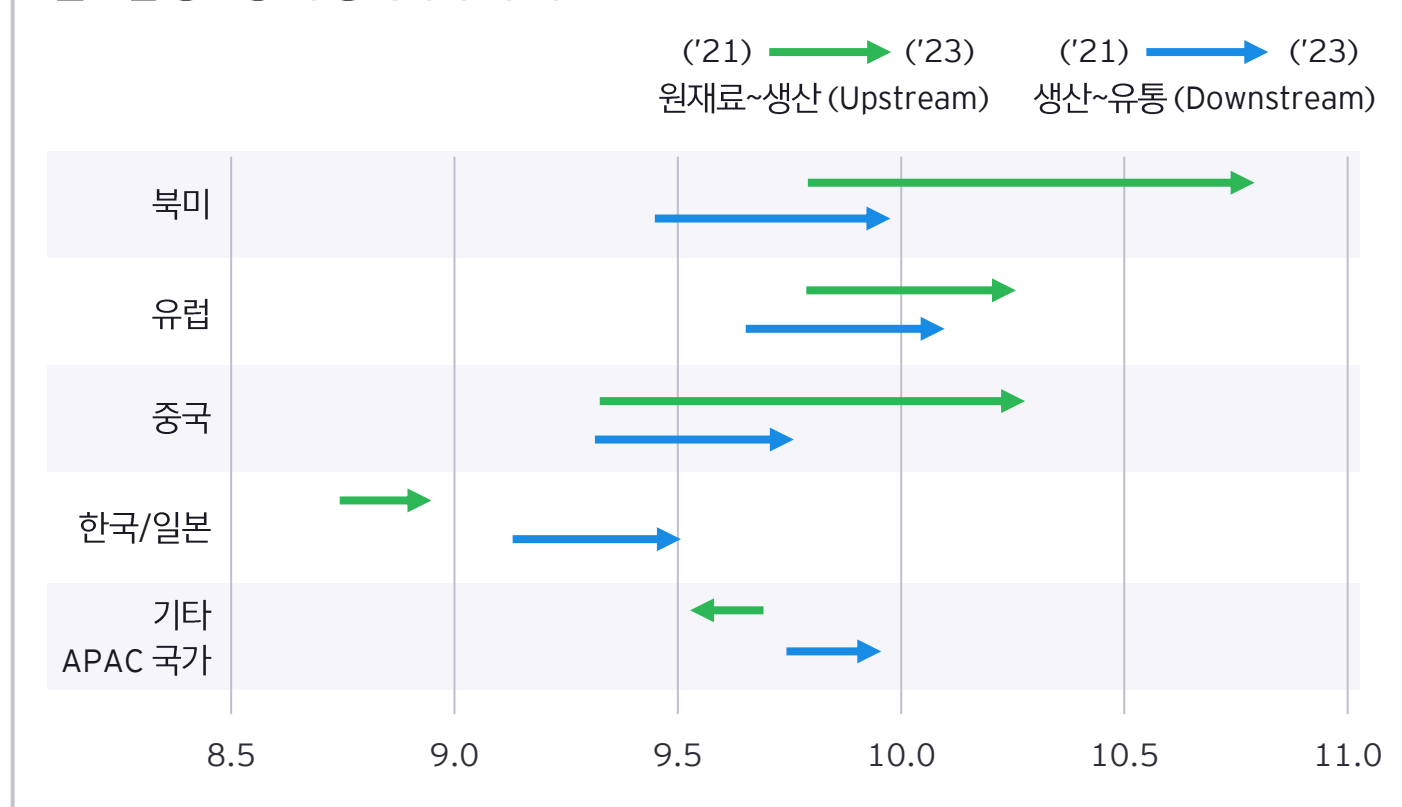


국가별 미국향 수출액 증가율² ('18→'23)



글로벌 공급망 복잡화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개자 수 차이³



1. '미국과 서방', '중국-러시아' 진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두 진영을 '연결'하는 국가 (Bloomberg가 명명) 2. UN Comtrade 3. BIS
Sources: UN Comtrade, BIS, EY Analysis

주요국 반이민 정책 강화로 임금 상승, 계층 갈등 확대 등 사회적 비용 부담 가중 전망

KEY POINTS

- 주요 親이민 정부(미·캐·독 등)들의 반이민 선회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공급되었던 저비용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인력 공급 부족 심화
- 비용 증가, 계층간 불화로 인한 기업과 정부가 부담할 비용 증가 예상

미국 반이민 정책 및 업종별 이민자 비중

트럼프 2기 핵심 반이민 정책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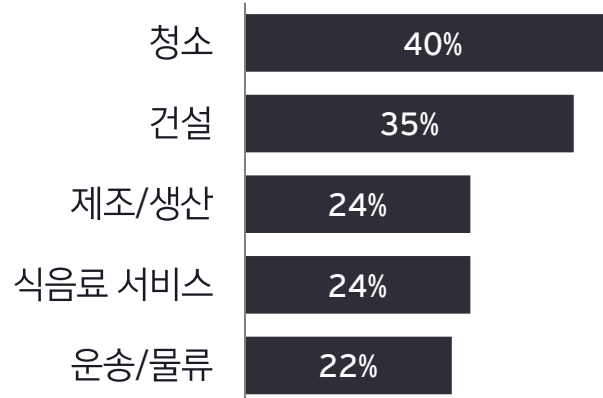
미국 남부 국경 통제 정책 확대

난민 한도 제한/망명 자격심사 강화

비자 정책 강화
(공공부조² 및 범죄자 심사 강화)

美 업종별 이민자 비중³

(2023년 평균)



BUSINESS IMPLICATIONS

주요국 저비용 노동력 감소로 Cost 상승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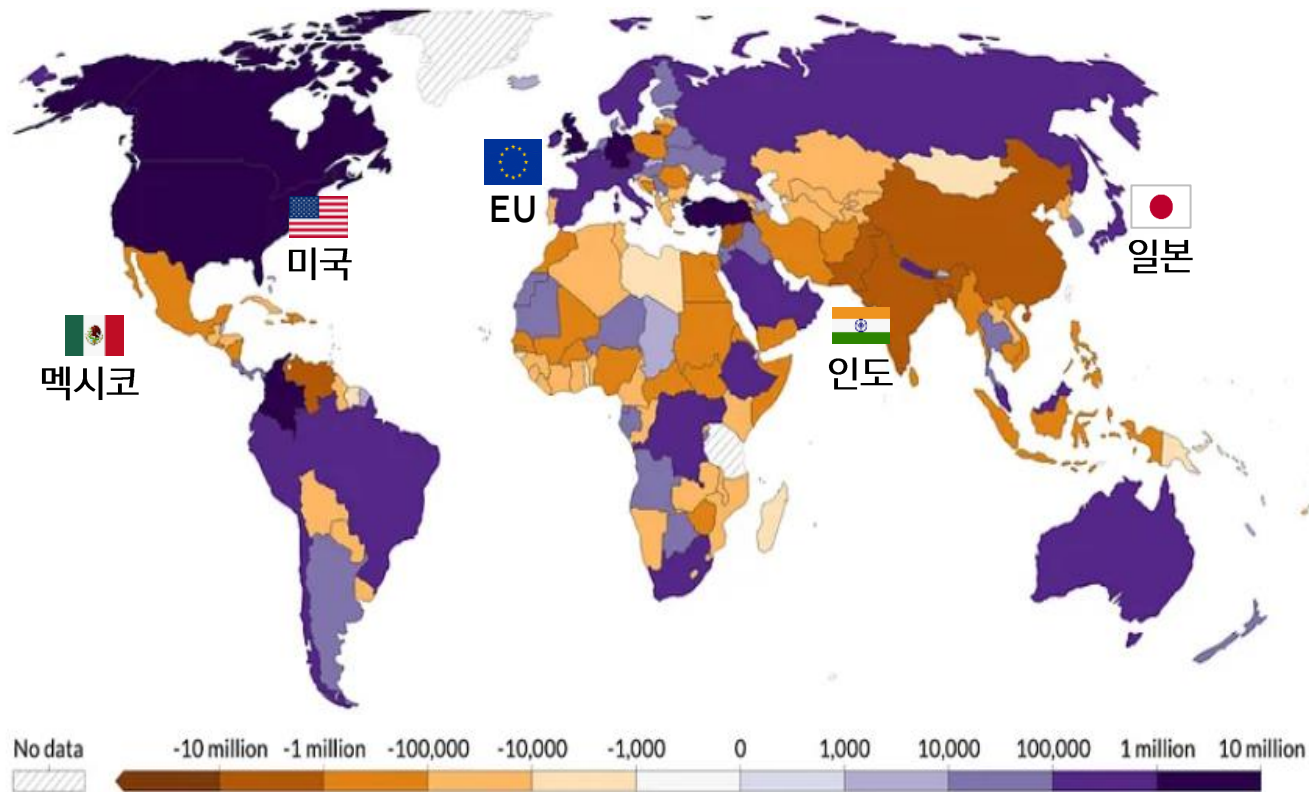
- 임금·물가 상승 및 소비 감소 대비하는 경영전략 수립
- 공장 생산라인 자동화 및 최적화 등 시스템 도입 검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보 경쟁 심화 대응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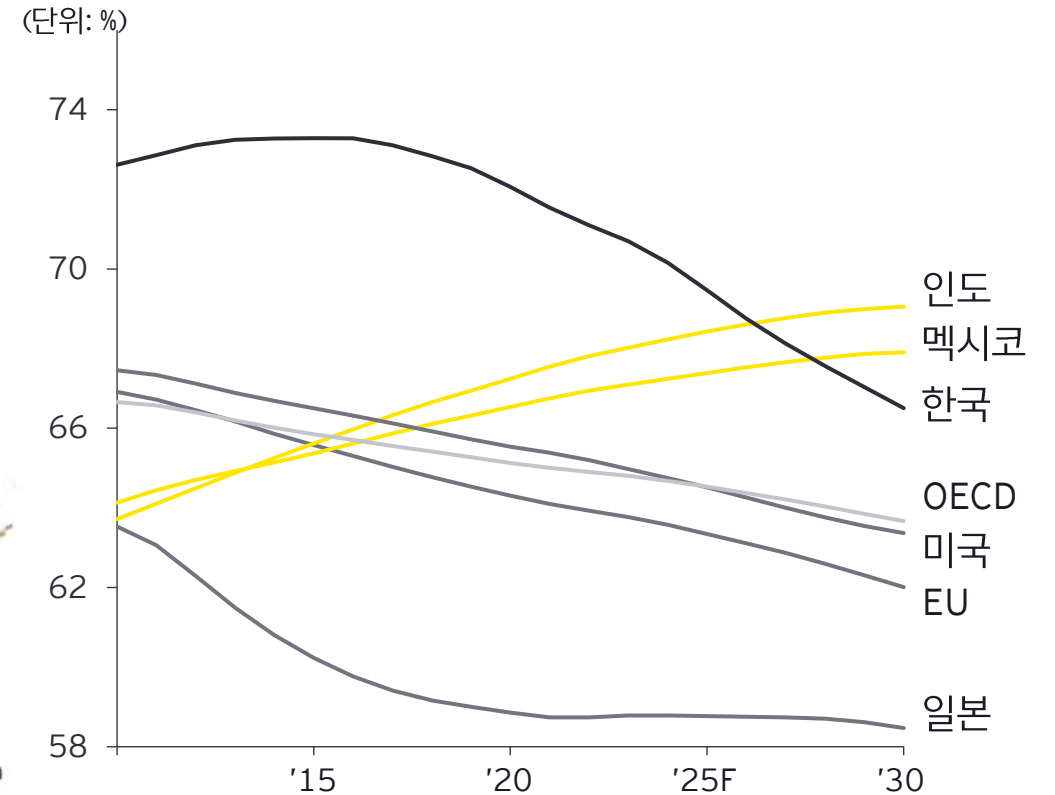
- 젊은 인력 확보 위한 산학협력, 해외 숙련 인력 채용 등 인재 확보 전략 다각화 필요
- 은퇴 노동자 재채용/리스킬 프로그램 검토

생산가능인구 증가 국가는 순유출이 크고, 감소 국가는 순유입이 큼

국가별 순이동률(Net Migration)¹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1. 한 국가로 유입된 이민자 수 - 타국으로 떠난 자국민 수
Source: Worldbank, UNHCR, EY Analysis

주요 국가들의 자국 경제 우선주의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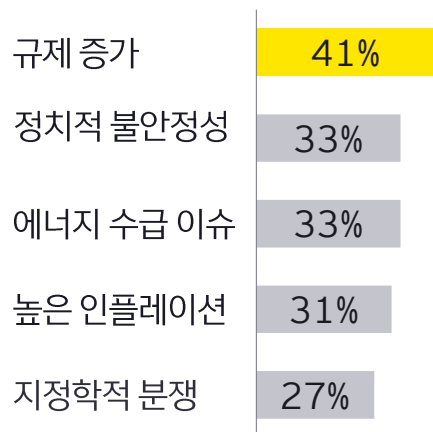
KEY POINTS

- AI 산업 육성 및 경제 우선 정책 등으로 주요국 친환경 기술 적용 비용 부담 증가
- 중국의 EV 점유율 및 희토류 패권 의존도 축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친환경 전환 속도 완급 조절 예상

친환경 정책 전환 기조 약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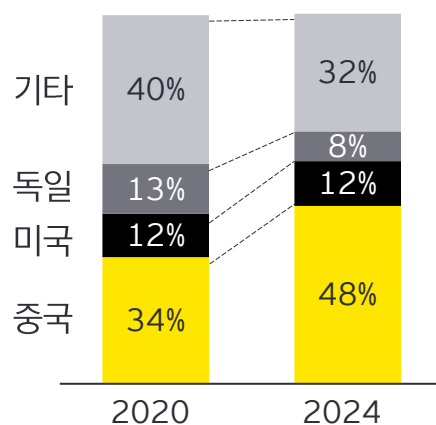
1. 자국 경제 성장 저해

[설문] EU 경제 위험 요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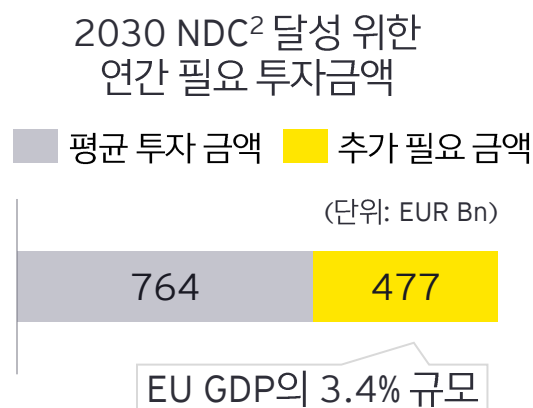
2. 높은 중국 의존도

글로벌 EV 판매 비중 추이



3. 그린테크의 높은 비용

추가 필요 투자금액(~'30년)



BUSINESS IMPLICATIONS

친환경 정책 시행 시점의 연기 전망에 맞춘 제품 전략 재수립

- 시나리오 플래닝 기반, 규제 지연에 따른 영향력 예측 및 대응방안 도출
- 친환경 사업 진출 및 투자계획 재검토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해 배터리 등의 재활용 산업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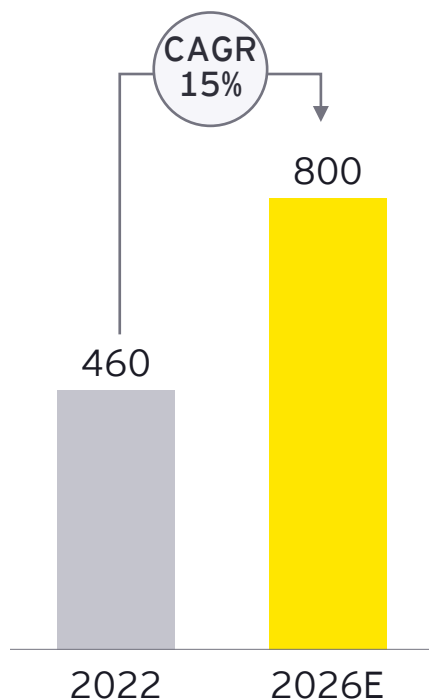
-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등 2차 광물 공급시장 선점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광물 재활용 유망 기술 보유 기업에 선제적 투자 검토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과 편중된 광물 의존도 또한 친환경 전환 둔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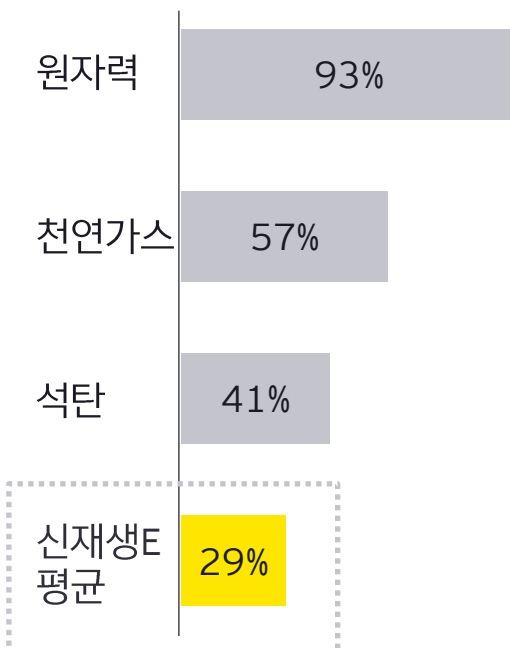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소비 전력 전망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

글로벌 데이터센터 소비 전력량 전망¹

(단위: TWh)



에너지별 Capacity Factor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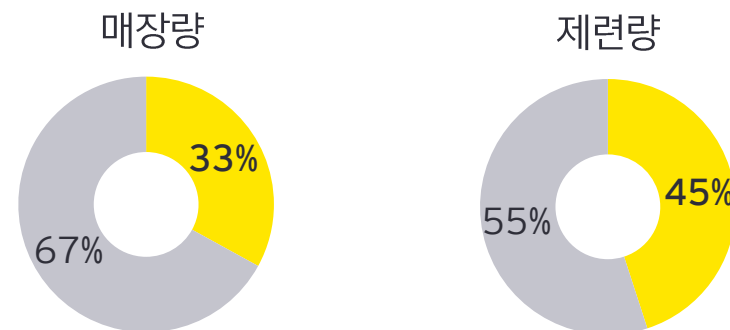
중국 핵심광물³ 점유율

주요 핵심광물

- 흑연: 전기차 배터리 음극활물질 주재료
- 희토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의 자석 부품
- 리튬: 전기차 배터리 및 ESS

글로벌 핵심광물 매장량 및 제련 점유율

■ 중국 ■ 그 외 국가



1. IEA 2023 Baseline Scenario 기준 2. 발전소가 실제로 전력생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나타내는 척도 3. 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그래파이트, 희토류 등
Source: IEA, EY Analysis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생산을 내재화하며 생태계 주도권 확보

KEY POINTS

- 주요국들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반도체, 데이터, 네트워크 등 AI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경쟁국 의존도를 낮추는 추세
- AI 기술 우위 확보 위한 강화된 자국 보호 사이버보안 정책, 거버넌스 등 규제 시행

주요 국가별 AI 생태계 지정학적 환경 변화



BUSINESS IMPLICATIONS

국가별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AI 생태계 투자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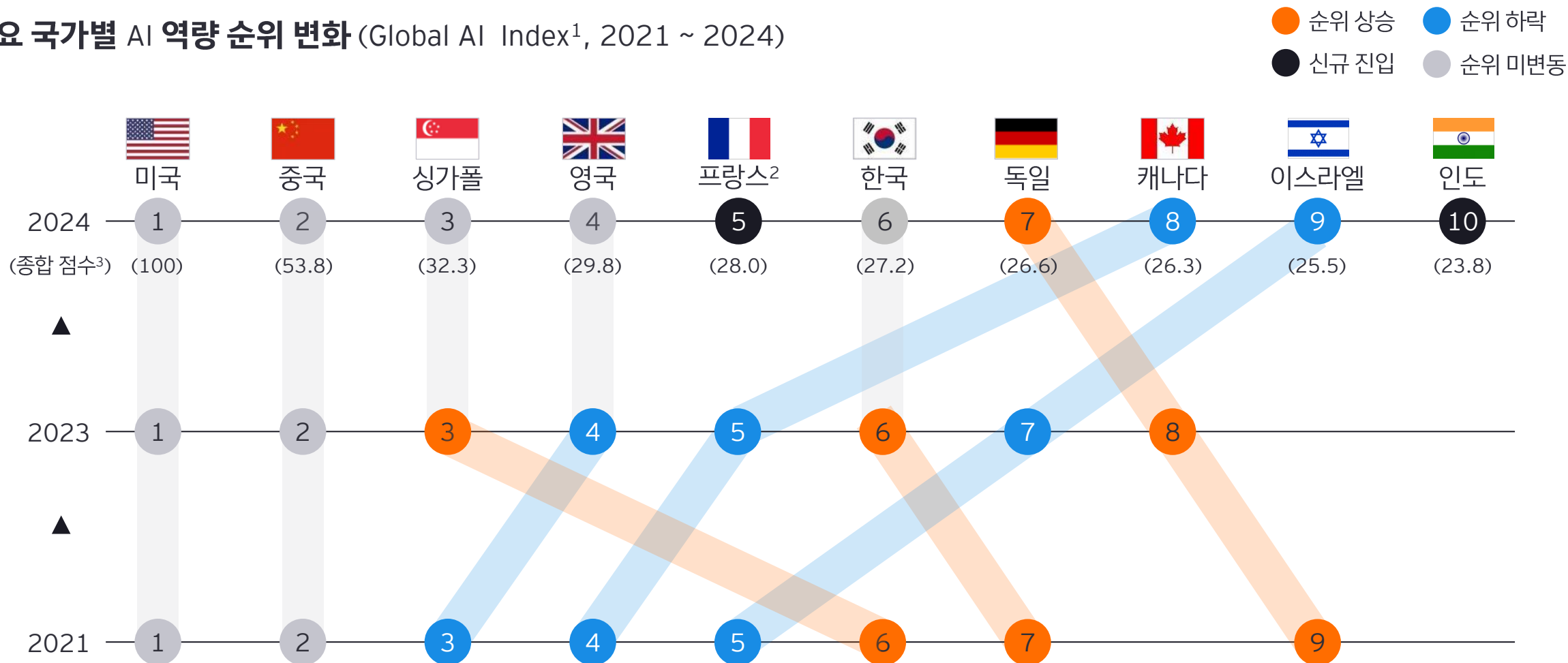
- 민·관 협력, 기술 인프라/데이터 접근성 기반 강력한 AI 생태계 구축
- AI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투자
- AI 기술 접목 사업 모델 및 서비스 투자 흐름/리스크 분석 기반 사업 전략

경쟁 및 협력 모두, 사이버 보안 및 Data Resilience 투자 확대 필요

- 데이터 및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인력 리소스 투자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력은 타국 대비 월등히 높으며 나머지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함

주요 국가별 AI 역량 순위 변화 (Global AI Index¹, 2021 ~ 2024)



1. 국가 별로 전문인력, 컴퓨팅 등 인프라, 규제 및 여론, R&D, 정부 지원, 투자 및 스타트업 수준 반영된 순위 지표

2. 프랑스는 '18년 이후 AI에 약 €7.2Bn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자했으며, 이는 동일 기간 영국보다 60% 많은 수치임.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25년 2월

€109Bn(약 163조원) 규모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전략을 발표 3. 최고점수 100점 기준

Source: Tortoise Media, EY Analysis

주요국들의 자국 우주 기술 강화를 위한 정책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

KEY POINTS

- 우주 기술 및 자원 확보 경쟁 및 지정학적 분쟁으로, 국가간 우주 산업 주도권 경쟁 격화
- 주요국들은 민-관 협력 하, 국가 안보 및 상업화 위한 우주 산업 전략 수립 및 유망 산업 적극 투자 진행

주요국 우주 정책 지출액 및 방향성



2024
정부 지출¹

\$79.7 Bn

\$12.1 Bn

\$19.9 Bn

핵심 기조
및 내용²

“민간 기업 참여 확대”

- 美정부 IET³ 구성하여 민-관 파트너십 추진
- 산업체 R&D 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 지원

“국가간 협력 촉진”

- 유럽 22개 정식 가맹국 및 준가맹국 협정 체결
- EUSPA⁴ 설립 및 ESA⁵ 주도 프로그램 추진

“정부 주도 정책 추진”

- 新 우주정거장 ‘텐궁’ 완공(’23년)
- 월면기지 건설 추진 (~’30년)

BUSINESS IMPLICATIONS

종합·중장기적 관점 우주비전/전략 및 기술 리더십 확보 필요

- 민-관 협력 하, 우주 거버넌스 수립 및 글로벌 파트너십·네트워크 구축
- 우주 산업 상업화 기술 R&D 및 우수 인력 확보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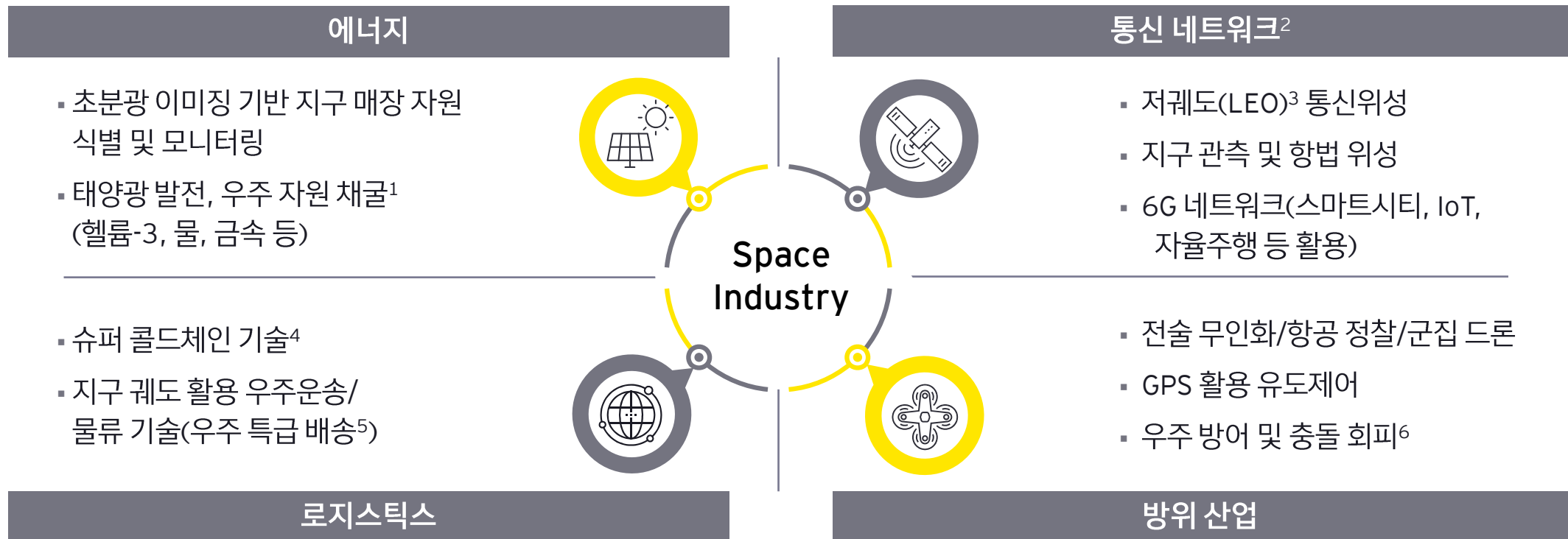
항공우주 기술 및 자원 기반 신규사업 기회 발굴 필요

- 상업적/재무적으로 잠재적 비즈니스 가치 창출 요소 적극 검토
- 항공우주 기술/데이터/리소스의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1. Statista 2. NASA, J.P. Morgan 3. Insight Embedded Team: 산업체 대상의 공공구매, 재정 지원 및 산학연간 협력/ 기술 이전 등 프로그램 (중소기업 연구지원금(SBIR), LSP: Launch Service Program) 4. EU Agency for the Space Program: 유럽연합 우주 프로그램 관리/지원 기관 5. 유럽 우주기관(European Space Agency)으로 우주 연구 및 개발 기관: 민-관 협력 위성서비스(우주통신, 위성항법 등) Galileo 프로그램 등 추진 (€68억)
Source: Statista, NASA, J.P. Morgan, EY Analysis

우주 경제는 산업 파급력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우주 경제 유망 산업 분야



1. JAXA(일본), NASA(미국) 외 민간 참여 2. 지형 한계 극복 및 리스크/비용 절감 3. LEO: Low Earth Orbit 4. 영하 70℃~270℃ 극저온 유지 운송 기술 5. 로켓에 물품 탑재된 캡슐을 지구 저궤도(고도 100~2000km)에 올려 태양전지를 통해 궤도를 돌다가 물품 필요 요청 신호 수신 시 해당 지역에 곧바로 떨어뜨리는 배송 방식 6. 위성/우주 물체/우주 쓰레기 등 충돌 예측 및 회피 기술

Source: OECD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EY Analysis

02

주요 섹터별 Impact

주요 섹터별 Impact (1/6)

첨단 제조/ 자동차

반도체/이차전지	+
방산(항공우주)	+
통신	+
자동차	+
...	+

자국 첨단 제조 산업 보호 정책 강화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은 인도, 베트남 등 경제 연결국¹ 중심으로 재편성 가속화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 고려 필수
- 중국 디리스킹을 위해 주요 국가들은 고위험 공급업체² 리스트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대비책 마련 요망

AI기술의 발전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핵심기술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며³,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시장도 급성장 전망

- 데이터 암호화 기술, 다단계 인증, 분산형 보안 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엣지 컴퓨팅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솔루션 도입 확대

주요국의 우주 경제 패권 경쟁 격화로 유관 첨단 제조 산업의 급속한 기술 발전 예상

- 특히, 민간·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우주 기반 고속 통신망 구축 분야에 미·중 간 치열한 기술 경쟁 예상

1. '미국과 서방', '중국-러시아' 진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두 진영을 '연결'하는 국가 (Bloomberg가 명명) 2. 재무 불안정, 데이터 보안 저하,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으로 고객 기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급자
3. '20년 이후 미국 주요 기반시설 해킹 시도 연평균 20% 이상 증가 (FBI)

주요 섹터별 Impact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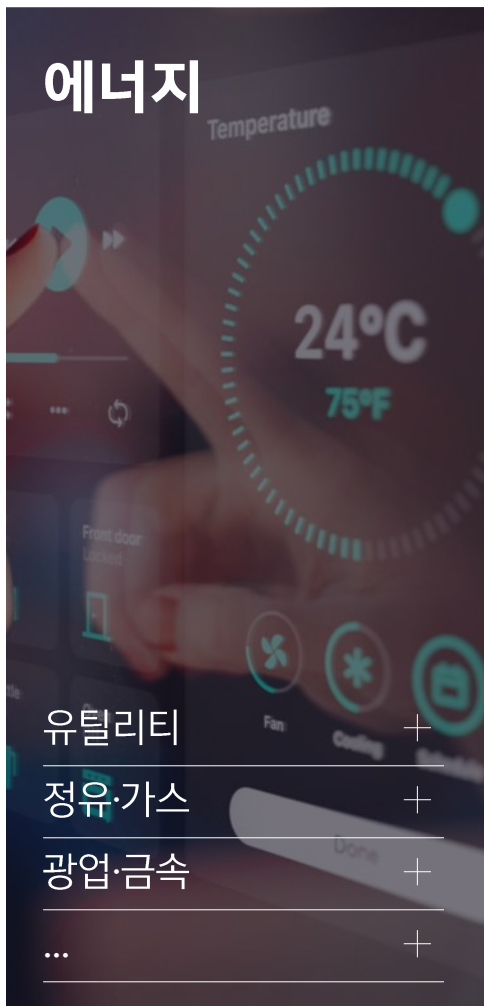
지정학적 분쟁 확대에 의한 공급망 교란으로 구매/생산 및 운송/유통 비용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 지속 위축 가능

- 수요 예측 및 재고 최적화, 경제 연결국 활용한 리스크 감소 등 공급망 비용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단, 본 섹터는 정부의 전략적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지정학적 영향력은 비교적 미미할 것

반이민 정책 확대에 의한 주요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AI 기반 로봇 활용한 물류 최적화 및 업무 자동화 도입 가속화

- 이민자 고용 비율이 높고 노동집약적인 소비재/유통 섹터 특성상, 단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재무 퍼포먼스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특히 유통 기업의 경우, 온오프라인 관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운영 자동화/효율화 기술 발전 전망

주요 섹터별 Impact (3/6)



AI 생태계 장악 경쟁 위한 자국 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¹ 증설 급증에 따른, 저비용 전력 인프라 수요 지속 증가될 전망

- 대규모 전력 생산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 및 화력 발전 의존도 높아질 전망
-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설비 등 전력 인프라 관련 신규 설치 및 노후화 설비 개보수 확대에 따른 사업 기회 확대

전쟁으로 급등하는 천연가스 가격 대응 위한 고효율 에너지 기술로의 빠른 Transition 전망

- SMR 등 원자력 프로젝트 및 ESS 설비 확대 통한 천연가스 의존도 점차 감소 전망
-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정책 및 설비 운전 최적화 프로세스 도입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포착 필수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품용 핵심 광물 및 제련 공정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감축하면서
신흥국 내 신규 광산 개발 및 제련 기술 투자 확대 지속

- 공급망 안정화 위해 채굴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Value chain 내 수직계열화에 대한 니즈 증대

1. 인공지능(AI) 용도의 최소 5,000대 이상 서버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주요 섹터별 Impact (4/6)



무역 및 투자 규제 강화, 친환경 전환 속도 둔화 등 국가 별 정책 Pivot에 따라 금융 기업들의 해외 투자 자산 리밸런싱 필요성 증대

-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수출입 및 역외 투자 제한 등 규제 강화로 산업/국가 별 리스크 헷지 전략 필요
- 주요국 친환경 정책 둔화로 글로벌 기후펀드 투자 자금 유입 규모 축소 예상되며, 이에 전통 산업,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품산업 등 타 분야로의 투자 재편성 고려

신흥국 경제 블록화 확대로 글로벌 디지털/가상 화폐 사용 확대로 인한 사이버 보안 이슈 증가, 더 나아가 기존 기축 통화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 재편 전망

- 신흥국들은 자국의 통화 안정성 및 국제 무역 거래에서 경제적 자주성 확보 위해 자체 디지털 화폐 도입 등으로 달러 패권 탈피 움직임 본격화
- 금융 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며, 전 산업에 걸친 사이버 피해 증가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 전망

주요 섹터별 Impact (5/6)

제약/바이오

본 섹터 관련 보호무역 정책¹ 확대로 섹터의 전세계적인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국내 산업은 위탁생산 사업모델, 한미 FTA 관세 혜택 등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기회로 작용 전망

-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 투자 제약, 기술 교류 단절 등 성장 둔화 요소 다수 발생
-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CDMO² 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에 따라 국내 대다수 의약품이 필수약품³으로 분류되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여 미국 관세 리스크가 비교적 낮음

AI 기술이 신약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필수 요소가 되면서 AI 인력 및 기술 확보 경쟁 격화

- AI 기술을 활용 시 신약 개발 비용 및 기간이 획기적으로 절감 및 단축됨⁴
- 후보물질 발굴 - 전임상 시험 - 임상시험 - 시판 후 안전 관리까지 전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AI 기술 투자, 연구 및 AI 관련 우수인력 확보 위한 경쟁 심화로, 산·학·연 협업 중요성 증대

제약/바이오 +

헬스케어 +

... +

1.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중국으로부터 필수품 수입 금지 위한 4개년 도입 공약 'Agenda 47' 발표 2.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수탁개발생산기업): Service Fee 기반 매출 발생 3. WHO가 지정한 필수 약물 목록으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 어려운 의약품을 뜻함 4. 신약 개발 비용 평균 3조원 → 6천억원, 개발 기간 평균 10년 → 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섹터별 Impact (6/6)

Private Equity

장기 수익성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및 우주산업이 PE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데이터센터는 고성장 산업이면서 장기 임대 등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서, 전후방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M&A 등 Transaction 확대 전망
- 정부 주도 중심이었던 우주산업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PE의 투자처는 위성¹ 중심에서 방산(탐사, 레이더 시스템 등), 항공, 저궤도 통신 등 우주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LP²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현상 유지 전망

- 경제 블록화, 공급망 변화 등 기회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올 해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24년에 이어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 존재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재발 시 PE 자금 조달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³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 관세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및 기업 수익성 악화로 투자 심리 위축될 가능성 높음

1. '14~'24년까지 우주 산업 투자의 87%가 위성 분야에 집중됨 2. Limited Partner (유한책임투자자) 3.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하 보류 결정(Fed, '25.2)

A scenic mountain landscape at sunset. A stone path leads up a grassy slope towards a sharp mountain peak. The sky is filled with soft, colorful clouds in shades of orange, pink, and purple. The foreground shows patches of green grass and small plants.

03

지정학적 이슈 대응 전략

지정학적 이슈 관련 대응 전략 (3A 전략)

1



Selective Globalization

Aligned

무역 정책 변화에 기반한(Aligned)
공급망 최적화 전략

- 주요국의 정책/규제 변동 대응을 위한 공급 거점 지역 다변화, 대체 공급업체 모색 등 공급망 다각화
- AI 기술 활용하여 유연하고 자율화/자동화된 공급망 구축

2



Pivoting Policies

Ahead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사전(Ahead) 대비

- 비핵심 사업 매각하여 자산 유동성 확보하고, M&A,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핵심 사업 강화
- 운영 자동화 및 효율화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3



New Rising Wars

Advanced

차세대(Advanced) 기술 패권 경쟁이
창출해낼 사업 기회 포착 및 생태계 참여

- AI, 반도체, 네트워크 등 핵심 산업 정책에 따른 기회 탐색 및 리스크 대응
- 기업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우주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 기회 모색

Contact Point

EY한영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실무 총괄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Team

민운기 매니저

woonki.min@kr.ey.com

김규민 매니저

gyumin.kim@kr.ey.com

이정훈 매니저

jeonghun.lee@kr.ey.com

남정언 시니어

jungun.nam@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5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209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